

제 26호
2014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회보

 강릉원주대학교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the main entrance gate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gate is a large, modern structure with a prominent, tall, narrow central tower. The tower is composed of several stacked rectangular sections and is topped with a small cross-like symbol. A wide, horizontal canopy extends from the base of the tower, supported by several thick, rectangular pillars. The pillars are also stacked and have a spherical ornament on top. The gate is set against a backdrop of a cloudy sky and some trees. The overall design is clean and architectural.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CONTENTS

- 04 | 교수회장 인사
- 06 | 대학 구조개혁과 도내통합대학실태조사위 활동 - 이근택 교수
- 11 | 발전이 아닌 퇴보의 우리대학 구조조정 - 조주복 교수
- 13 | 총장 중간평가 결과에 대한 총평
- 15 | 신임교수 소개
- 17 | 정년퇴임교수 소개
- 23 | 교수 동정
- 25 | 교수회 활동
- 33 |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
- 37 | 제18대 평의원회 명단



교수회 학칙화는 전 교직원과의 약속이자 총장의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

부족한 제가 제18대 교수회 회장직을 맡은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학내외에 있었지만 교수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에 대과없이 교수회를 이끌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회 회장으로서 저는 무거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수회는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수회 학칙화입니다.

1987년 대학 민주화가 들불처럼 일어날 때 교수회 위상과 권한이 학칙상 보장되는 “교수회의 학칙화” 실현은 민주 대학의 제1과제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학의 민주화 시계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때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학 민주화의 결실인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우리 대학 총장들은 “교수회 학칙화”를 공약(公約)으로 내걸어 득표에 활용한 후, 총장에 당선되면 공약(空約)으로 폐기처분 해버렸습니다. 대다수 국립대학들이 교수회를 학칙화 하고 교수회를 중심으로 학내 민주화가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의 학내 민주화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제2대 총장으로 취임한 전방욱 총장은 본인이 교수회장으로 봉사할 당시 “교수회의 학칙화”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총장 후보 때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은 물론 외부에도 이를 핵심 공약사항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장은 그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총장은 대학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운영으로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며, 대학의 주요 사안에 보다 합리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을 경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부역량을 극대화하여 대학 발전의 최선두에 서야하는 것이 총장의 사명이며, 이는 학칙화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가 존재하고 교수회를 대학운영의 협력체로 인정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 듯 불확실하고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성과급연봉제, 연금법개정, 대학구조조정, 대학평가 및 업적평가와 같은 학내외에 산적된 많은 문제들이 터널 곳곳에 암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교수님들의 협조 없이 본부 독단으로 해결해 나가려 하는 것은 본부의 독선일 뿐 아니라 오만입니다. 본부의 이러한 행태가 대학 곳곳에서 균열을 일으키는 여러 징조들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우리 교수회는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역량을 총 결집했을 때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시대의 격랑을 능동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으며, 그것은 교수회 학칙화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교수회 학칙화는 총장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며, 우리 구성원의 힘을 한데로 모으면서 대학구성원 모두가 민주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리고 교수회 학칙화는 모든 교수님들의 오랜 바람이자, 총장의 약속이자 의무입니다. 그 것 없이는 총장의 그 어떤 미사여구도 진실이 빠진 말의 상찬에 불과합니다. 총장은 이 말을 깊이 명심하여 우리대학 민주화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언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교수회보 발간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4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찬 2015년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원주대 교수회 회장 정강연 드림.

대학 구조개혁과 도내 통합대학 실태 조사위 활동



식품가공유통학과 이근택

가끔 옛 시절이 생각난다. 1980년대 말... 그 당시에는 연구비와 대학원생도 없고 강의 부담도 크지 않아 그 다지 바쁜 일이 없었다. 고백하건데 가끔은 점심 먹으러 소금강 근처까지 가서 놀다 늦게 들어왔고 일과시간 중 바둑을 두거나 지변호수를 산책하곤 했다. 공무원법상 명백한 근무태만이자 복무규정 위반이었다. 때로는 퇴근버스 같이 타고 나가다 눈 맞는 교수들과 술 한잔 하면서 세상 편하게 지내던 시절이었다. 1990년대 중반 PC와 인터넷이 보급되었지만 엔터키 눌러 놓고 밥 먹으러 갔다 와야 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외부로 서류 보낼 일 있으면 프린트해서 버스 편으로 보내던 시절이었다. 이런 일들이 불과 20여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는 구조개혁이나 교수평가 같은 말도 물론 없었다.

“해피 슬로우라이프...”

요즘 출근하여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메일을 체크하는 것이다. 전산소에서 차단한다는데도 스팸메일들은 왜 이리 많은지... 조교가 제출하라는 서류 챙기고, 전자결재 공문 확인하고, 강의 준비를 한다. 그리고 대학원생과 연구과제 진행 상황에 대하여 의논한다. 요즘은 인터넷과 이메일 덕분에 일처리 속도가 빨라졌지만 대신 복잡하고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업무들이 많아 예전보다 오히려 더 바빠졌다. 또한 여러 연구 사업과 회의에 참여하는 일도 잦아졌다. 그리고 성교육, 티칭교육 또는 워크숍 등에 참석해야 점수를 준다고 하고 강의평가 점수가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며, 외부 산학협력 점수 더 받으려면 챙겨야 할 일들도 많다. 이런저런 연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과들은 지원도 줄고 평가도 나빠진다. 타 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내 학과들 간에도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언론에서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남은 개혁 대상 집단은 대학과 종교단체라고... 누가 봐도 요즘 대학이 개혁의 도마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이후부터 우후죽순으로 세워진 지방사립대학이 이제는 정원을 반도 못 채워 재정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2018년부터 대학 신입생수보다 고교 졸업생 수가 적어진다고 한다. 교육부에서



는 작년부터 대학평가를 통하여 반강제적으로 대학 입학 정원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을 많이 줄이는 대학에게 평가를 좋게 해 주는 시스템으로 말이다. 사실 아직까지 입시 경쟁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높은 대학들의 정원을 줄일 게 아니라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부 지방 사립대부터 폐교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쯤 되자 지금까지 느긋하게 지내던 교수, 학과들도 가만히 있지 못 하게 되었다. 물론 학과가 문을 닫건 말건 내 일만 하면 된다는 강심장을 가진 교수들도 있다. 그러나 이제 조용하던 호수에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고 물갈이가 시작되었다는 감은 모두들 느끼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대다수 교수들은 ‘독이 무너지지야 않겠지... 금방 물갈이가 되겠나?’ 하는 여유들을 보이고 있다. 아니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교수나 학과들이 더 많다는 것이 적합하겠다.

사실 교육부는 2004년 3월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때부터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사립대학 자발적 인수·합병 및 퇴출, 학생정원 감축 및 학과 통·폐합, 대학경영의 민주성·효율성 제고 등의 대학구조개혁 작업을 시작하였다. 즉, 사회 인력수요가 크게 감소한 분야의 정원감축, 학부(과) 통폐합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혁신, 대학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구조개혁 지원, 총장선임, 교원임용·교수업적평가 등 인사제도 개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보장 등 종합적인 학사구조개혁과 연계된 구조개혁 지원, 대학 스스로 발전적인 구조개혁 모델 개발 및 추진, 그리고 학내 구성원의 합의에 기초하고 실천 가능한 구조개혁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가능하도록 평가와 적절한 보상 등의 세부적인 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중 많은 내용들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그 당시 교육부에서 국립대 통합을 유도하려 통합 예산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강원도 내에서는 강릉대학교가 원주대학교와 2007년에 통합을 했다. 강원대학교는 삼척대학교와 2006년에 통합이 되었다. 강원권의 국립대학 중 춘천교대를 제외한 4 대학이 2-2 짝짓기를 한 셈이다. 당시 우리 대학은 205억, 강원대는 246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어렵게 성사된 통합 강원대학교나 강릉원주대학교는 초반에 시너지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두 대학은 타 국립대들보다 낮은 재학생 충원율로 인하여 2011년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 국립대로 나란히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 전방욱 총장은 취임 직후 대학 구조조정 의 깃발을 높이 들었으나 지역사회와 교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결국에는 음악과와 패션디자인학과를 강릉으로 옮기고 산업정보경영공학과를 원주로 이전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그 과정에서 교수의 해임, 고소고발, 감사 지적 등 행정적 혼란과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강원권 대학들이 통합한지 이제 7-8년이 흘렀다. 그러나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이 강릉원주대학교로 통합된 후 현재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 동안 아무런 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는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가 통합된 강원대학교도 마찬가지다.

이제 국내 대학들은 자의건 타의건 무한 경쟁 구도 하에 구조적 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다. 이 과정 중 경쟁력이 없는, 즉 학생들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과는 폐과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교육부에서부터 국립대학교의 구조 개혁 칼날을 들이대고 있고 그 칼날 앞에는 학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연구실적 등 지표들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평가 지표들의 부당함과 지역 국립대와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우리 대학 또는 학과의 생존권을 부르짖기에는 역부족이다. 무릇 세상의 변화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기에는 현재 우리 대학의 주변 상황이 안 좋다. 그 동안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 돌아가는 것에 무관심했고 내부 개혁에 미흡했다. 전임 총장은 재선 가도를 위하여 굳이 교수들에게 강도 높은 내부 개혁 정책을 펼 수가 없었다. 우리 대학교가 ‘신이 내린 직장’이란 일부 자조적인 웃음 속에 우리 내부가 조금씩 썩어가고 있었던 것을 몰랐다. 아니 모른 척 했다고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도 일부 혁혁한 대학 발전을 이룬 총장을 제외하고는 단임제를 외치는 가 보다. 물은 고이면 썩는 법이다. 항상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새 변화가 요동치는 가운데 강해지고 자생력이 생기는 법이다.

대학은 학생을 주체로 학생들을 발전시키는 행정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4년간 재학하면 학교를 떠난다. 평생 대학을 지켜 내야 할 사람들은 교수들이다. 직원들이 교수들보다 덜 중요하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대학의 성과지표를 높일 주체는 교수들이다.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도록 강의와 학생지도를 성실히 하고 연구를 열심히 하며 아울러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산학협력활동을 해야 할 주체는 교수들이란 말이다. 모두들 우리 대학이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책들은 구태의연하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 대학에 불 꺼지지 않는 연구실과 실험실에서 분투하는 교수들이 꽤 많이 있다. 그러나 자기 일 외에는 학과 발전을 위한 희생 봉사 노력에 무관심하고, 연구실 문 열고 들어가면 외부와 단절하고 있는 교수들도 보인다. 이런 부류의 교수들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 때 가서야 조금씩 움직인다. 이제는 교수들도 학교의 발전을 위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개진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학에 3년 전 하위 15% 대학의 오명이 씌워진 후 아직까지도 교수들 연구 실적이나 제



반 평가 지표들이 국립대학들 중 하위권으로 나타난다. 한 두 교수의 특정 성과로 논문인용지수 아시아 몇 위라는 허구에 사로잡혀 우리 대학의 실상을 외면하거나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논문 한편 안 쓰고 휴강을 일삼는 등 강의에 소홀한 교수들이 있다면 스스로 반성하고 자구노력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국회의원들 일 안하고 세비 받는다고 욕할 일이 아니다. 우리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은 모두들 반대한다. 배는 점차 가라앉아 침몰 직전인데도 말이다. 연구 안하고 강의도 제대로 안하는 교수, 보직 지향적 교수,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총장 눈치만 보며 오히려 관료적인 직원들은 모두 학교를 떠나는 것이 맞다.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개혁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훌륭한 리더는 3가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 지난 6월 전체 교수회의에서 장기발전 계획을 의논할 때 나는 강원대와의 통합 및 통일의 가능성을 대비한 학교 당국의 준비와 대응책을 질의했다. 총장의 대답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본 바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9월 총장은 강원대의 현 상황이 우리보다 나은 위치의 대학이 아니므로 통합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현재 강원대학교와 통합한 삼척대학교의 입학 성적은 통합 전보다 매우 향상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면 우리 대학과 강원대 통합 학과들의 입학성적, 충원율, 연구실적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본부나 미래정책연구원에 이러한 자료가 있는 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설사 있다 한들 교수들한테 공개가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이 밀실 행정이다.

2014년 7월 교수회의 의뢰를 받아 현재 각 단과대학에서 추천 임명된 도내 통합 대학 실태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본 위원회가 발족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강원대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활동으로 보도하였고 일부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강원대와 통합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향후 통합 대학 또는 연합대학 체제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경우의 수와 득실을 따져가며 우리의 틀과 판을 새로 짜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우리 사회에는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과거 우리의 결정이 옳았는지 점검하고 현재 우리 위치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적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칠 때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지난 통합의 득실을 평가하고 향후 통합이 되던 연합대학 체제로 하던 이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7월 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원대 총장과 교수평의위원회 의장을 면담하였다. 우리 위원



회 활동에 대하여 우리 대학 집행부와는 달리 강원대 측으로부터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도내대학의 통합 추진은 여러 가지 장점과 문제점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학과 또는 구성원 간 이해가 상충될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대학의 구조 조정을 강요당하는 작금의 분위기에서 지난 통합 과정의 득실을 분석함으로써 교내 구성원으로 하여금 향후 스스로 통합의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대학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검토해 보기 위하여 가동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기 전 교수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므로 언제든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환영한다. “끝”



발전이 아닌 퇴보의 우리대학 구조조정



여성인력개발학과 교수 조 주 복

우리 대학의 구조조정이 추진 된지 1년이 지났다. 구조조정의 성과보다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20세기까지는 일방적으로 구성원들을 지배통제하면서 학내문제를 집행부만이 해결하였던 통치(government)의 시대였다면 21세기부터는 집행부와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governance)의 시대라고 하겠다.

무엇보다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서로가 합의했던 약속도 개인의 사익을 위해 헌신짝 버리듯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사람도 있으며, 집행부는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는 학칙(우리 대학 학칙 제101조)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편의성에 따라 필요하면 교수들의 의견을 모으고 필요하지 않으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위원회라는 이유를 들어 결정 및 밀어붙이기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참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에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2012년 12월 3일 확대보직자회의에서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일정을 발표하였으나 계획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심지어 교수회 소집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학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법정 소송문제로까지 확대시키는 등 구성원들 간의 화합을 통한 대학의 발전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 등으로 퇴보의 행보를 보여왔다.

여성인력개발학과의 문제도 당초 학과 교수들은 복지학과와 국제언어문화학과로 학과분리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교수의 지나친 욕심에 의해 모두가 합의한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전원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으로 복지학과와 다문화학과로 학과분리를 요청하였으나 당사자인 학과 재학생이나 교수들과의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여성인력개발학과 폐지와 복지학과 및 다문화학과의 신설을 결정하였다. 학과폐지라는 충격에 여성인력개발학과 재학생들은 학습의욕 상실과 함께 취업에 대해서 불안을 호소하는 등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다. 여성인력개발학과를 폐지하더라도 복지학과와 다문화학과로 신설이 아니라 분리를 추진하였다면 재학생들도 학습의욕 상실이나 취업에 대한 불안 등의 문제는 발

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신설학과인 복지학과와 다문화학과의 교육과정 편성과정에서도 학과교수들의 의견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연직 보직교수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결국 2개의 복지관련 유사학과의 탄생하게 되었다. 심지어 벌써부터 다문화학과에 대해서는 제2의 여성인력개발학과라는 등 학과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회자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의 약 41%(34개 교과목 중 14개 교과목)가 사회복지교과목으로 편성되어 복지관련 유사학과의 정체성이 의심을 받게 된 때문이다.

복지학과 역시 후발주자(전국적으로 ‘복지’라는 이름이 포함된 학과 수가 약 300개)이기에 일반적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보다 국제기구나 국제개발원조(ODA)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국제복지로 특성화를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고, 최근 다문화학과에서 전공 트랙을 다문화영역과 국제복지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함으로써 오히려 복지학과의 특성화 방향이 모호하게 되었다.

이처럼 학과의 미래를 결정짓는 학과의 특성화 목표와 교육과정을 앞으로 경쟁대상인 대학 교수들의 의견과 보직교수인 비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결정함으로써 또 다시 학과의 장래는 표류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과평가까지 받게 된다면 학과의 미래는 더욱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여성인력개발학과 소속 교수들의 전공이 복지학과나 다문화학과와 일치하지 않아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종용하며 특별연구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양질의 교육 즉, 제대로 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학부나 대학원 학위 전공이 복지학과나 다문화학과와 다를 경우 선수과목 등을 수강해서라도 제대로 된 학위를 취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든 일반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든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오로지 학위만을 취득하도록 하는 형식적인 보여 주기식의 학위취득의 강요는 물론 융복합 시대에 복지학과와 인접한 학문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교수에게도 강제로 학위취득을 강요함으로써 학교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제공에 대해서도 확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두 번 다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교수회의 법정화 등의 약속 이행과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업무수행으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적인 대학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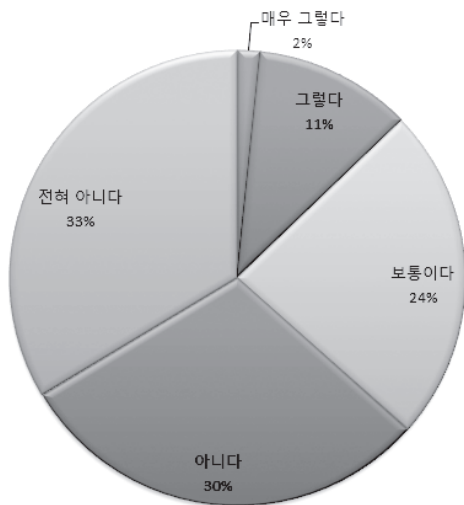
총장 중간평가 결과에 대한 총평



우리 강릉원주대학교는 1991년 3월 종합대학이 된 이후 2007년 3월 1일에 원주대학교의 통합과 더불어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강릉원주대학교의 역사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역대 총장들이 맡은바 책무를 다한 것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강릉원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강릉원주대학교의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각 총장의 임기 내 업적과 과오가 단시일 내에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를 통해 제시된 후보자로서의 공약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며, 이행 여부는 신중히 검증되어야 한다.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는 이러한 취지와 배경에서 2001년 11월 28일 임승달 총장의 중간평가와 2005년 8월 31일 한송 총장의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방욱 총장의 중간평가를 시행하였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나, 총장이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독려하는 일 역시 구성원의 책무이다. 이에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는 지난 2년 10개월간의 총장의 행정행위 및 공약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교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현안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 본 중간평가의 목적이다.

설문지는 총 355부를 배포하였고 이 중 193부가 회수되어 전체의 2분의 1이 넘는 54.4%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1〉 응답 답변 분포 백분율

을 나타내었다. 단과대학별로 회수율은 조금 달라서 인문대학은 69%, 과학기술대학은 66%, 생명과학대학은 62.2%, 공과대학과 예술체육대학은 각각 60%, 자연과학대학은 48.7%, 사회과학대학은 47.8%, 치과대학은 40.9%, 보건복지대학(문화대학)은 27.6%로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특히 13개 문항 전체의 응답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총 응답 중 “매우 그렇다”가 2%, “그렇다”가 11%, “보통이다”가 24%, “아니다”가 30%, “전혀 아니다”가 33%를 차지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13%, 부정적인 응답이 63%로 긍정적인 응답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약 5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총장 중간평가의 문항별 평균은 <표 1>와 같다. 각 문항에 대한 평가에서 3점을 평균점으로 하였을 때 모든 문항이 평균 3점미만을 보여주고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총장 중간평가 문항별 평균

문항	내용	평균
1	대학운영 기본철학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	2.51
2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수립에 교수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2.14
3	교수회 법정기구화의 이행	1.66
4	지역사회로부터 지지	2.25
5	우리대학 구조조정이 합리적으로 잘 진행	2.31
6	보직자를 공정하게 인선, 임명	2.20
7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음	2.29
8	대학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충분히 대외적인 활동	2.32
9	교직원의 보수 및 복지 수준이 향상	1.75
10	교육과 연구요건의 개선	2.35
11	총장으로서의 역량(리더십, 연구기획력, 협동심 등)	2.23
12	총장으로서의 역할(교직원간의 화합 및 소통, 지역과 대학의 소통 등)	2.03
13	대학운영 성과의 전반적인 평가	2.23
전체평균		2.17

특히 “현 총장이 약속한 교수회 법정기구화의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평균 1.66을 받았으며, “현 총장 취임 후 교직원의 보수 및 복지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역시 평균 1.75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나머지 설문 문항 역시 <표 1>에서와 같이 모두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전방욱 총장의 행정행위 및 공약이행에 대한 중간평가 설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잘한 일로 LINC 등 다양한 대학재정지원 사업 및 특성화 사업선정 이외에 잘못된 일로 교수 고발, 징계, 해임 등 교권 침해, 학내 구성원 간 소통 및 화합문제, 보직자 임명 및 적절하지 못한 인사, 일방적인 학과 구조조정, 기성회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교수회 법정화 불이행, 대외활동 및 리더십, 교직원의 복지, 지역과의 소통 등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볼 때 **총장이 전체 교수들에게 한 본인의 핵심공약 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대학을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이 대다수 교수님들의 냉엄한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 교수님들의 엄정한 평가 결과로 미루어볼 때, **전방욱 총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의 대학운영을 대다수 교수들이 바라는 교수회의 학칙화와 복지개선에 보다 더 노력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신 / 임 / 교 / 수



1. 성명 : 이승일
2. 소속 : 인문대학 사학과
3. 메일 : blueat89@gwnu.ac.kr
4. 연구실 전화번호 : 033-640-2148
5. 학력
 - 한양대 문학사
 - 한양대 문학석사
 - 한양대 문학박사
6. 경력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사



1. 성명 : 박남일
2. 소속 : 생명과학대학 식물생명과학과
3. 메일 : nipark@gwnu.ac.kr
4. 연구실 전화번호 : 033-640-2351
5. 학력
 - 학사: 강원대학교 농학과(1991.3 - 1998.2)
 - 석사: 강원대학교 농학과(1998.3 - 2000.2)
 - 박사: 캘거리대학교(캐나다) 생물학과(2001.5 - 2007.4)
6. 경력
 - 명지대학교 박사후연구원(2007.9 - 2009.2)
 - 충남대학교 박사후연구원(2009.3 - 2011.11)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2011.11 - 2014.2)



1. 성명 : 김연화
2. 소속 : 예술체육대학 공예조형디자인학과
3. 메일 : brightpond@gwnu.ac.kr
4. 연구실 전화번호 : 033-640-2538
5. 학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BFA, MFA)
 -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미술학박사(Ph.D.)
6. 경력
 - 국내외 개인전 - 「환(環)」 - FINGER FORUM 갤러리-일본名古屋市 외 10회
 - 연구논문발표 - 「The Esthetic Form and the Representation Element of the motif of Chinoiserie」 외 10편
 - 저서 - 「디자인 연구 방법론」, 「디자인의 세계」



1. 성명 : 신보미
2. 소속 :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3. 메일 : purplebom@gwnu.ac.kr
4. 연구실 전화번호 : 033-640-2860
5. 학력
연세대학교 치위생학 학사 졸업
강릉원주대학교 치의학 석사 졸업
강릉원주대학교 치의학 박사 졸업
6. 경력
2008.04~2008.12.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2009.01~2012.02.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1. 성명 : 유선영
2. 소속 : 보건복지대학 다문화학과
3. 메일 : syyoo@gwnu.ac.kr
4. 연구실 전화번호 : 033-760-8852
5. 학력
- 학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박사: University of Georgia, School of Social Work
6. 경력
-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역임
- 이랜드복지재단 사회복지사 역임
- 굿네이버스 사회복지사 역임



1. 성명 : 장승욱
2. 소속 :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3. 메일 : swjang@gwnu.ac.kr
4. 연구실 전화번호 : 033-640-2180
5. 학력
- 영남대학교 학사
- 영남대학교 석사
- 영남대학교 박사
6. 경력
- 경북대학교 연구교수
- 경북대학교 강의교수
-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1. 성명 : 박수지
2. 소속 : 보건복지대학 복지학과
3. 메일 : susiepark@gwnu.ac.kr
4. 연구실 전화번호 : 033-760-8862
5. 학력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
- 독일 Justus-Liebig대학 정책학과 박사(Ph.D.)
6. 경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11~2014)



▶ 정 / 년 / 퇴 / 임 / 교 / 수



■ 임승달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과)

■ 학력

- 1968~1974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공학사
- 1975~1977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도시계획학석사
- 1988~1994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 주요 경력

- 1981.4 ~ 2014.2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1988.3 ~ 1990.2 강릉대학교 영동문제연구소장
- 1991.3 ~ 1993.2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 1994.5 ~ 1996.4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 1995.2 ~ 1997.2 대한교통학회 부회장
- 1995.4 ~ 1997.4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자문위원회 사회간접분과위원
- 1996.7 ~ 1997.7 미국 Univ. of Delaware 객원교수
- 1999.4 ~ 2003.4 강릉대학교 총장
- 2004.2 ~ 2006.8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장
- 2003.2 ~ 2007.2 국무총리실 / 국토정책심의회 위원
- 2005.2 ~ 2007.2 대통령자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주요 활동

- 학회 활동

- 대한교통학회 이사, 상임이사, 편집위원, 부회장, 고문
-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상임이사, 학술상심사위원장, 부회장
- 환동해권연구회 부회장

- 논문/연구보고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 4 동해시 개발과제와 방향 동해상공인주최 세미나주제발표논문(동해) · 1995.11 통합삼척시 교통시설확충의 과제와 방향 삼척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주제발표, 동해안시대를 주도하는 삼척지역경제활성화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 1996. 2 중소도시 주차특성과 관리방안- 강릉시를 중심으로 강릉대학교 동해안지역연구소 발행 동해안연구 학술지 논문발표 · 1996. 3 환동해권시대에 대비한 동해안 개발전략 강원개발연구원 발행 강원포럼 학술지 논문발표 · 1996.12 삼척시종합개발계획 공동연구(강원발전연구원) · 1997. 4 강릉시 건설종합계획 공동(강릉시) · 1997.10 성우현대리콘도 2차 산업 교통영향 평가, 공동(성우현대리조트(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2 강릉터미널 주변 교통처리 계획, 공동(강릉시) · 1998. 2 강릉시 이설 기본계획, 공동(강릉시) · 1998. 2 강릉-원주 철도기본계획, 공동(강릉시) · 1998.10 금강산개방이 영동권 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동해안 발전 연구회 주최 세미나 발표 · 1998.12 양양국제공항 주변개발계획, 공동(양양군) · 2010. 8 동해안권 농수산업 실태와 경쟁력 제고 방안 한국지역발전학회 발행 지역발전연구 논문발표 |
|---|---|



- 김기영 교수 (체육학과)
-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학사)
 -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

- 주요 경력
 - 1986.3 ~ 2014.2 강릉원주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 교수

- 주요 활동
 - 저서
 - 비만클리닉의 이론과 실제(2013, 북코리아) · 심혈관계 건강을 위한 힐링스포츠(2013, 북코리아)
 -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의 이론과 실제(2010, 북코리아)
 - 육상경기총론(1997, 보경문화사) · 생활건강(1993, 정훈출판사)
 - 86-88 대비 청소년 기초체력 육성교제(1987, 체육부)



- 김종진 교수 (음악과)
- 학력
 - 1967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 1983 이태리 로비고 음악원 졸업(10점 만점)

- 주요 경력 및 활동
 - 1983 Assisi 음악축제 독창자
 - 1984 귀국독창회 및 3회 독창회 개최
 - Opera La Tosca, La Bohem, Don Giovanni, L'eligir da more, Gianni Schichi 등 많은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독창자 및 오스트리아 순회 공연
 - 300여회에 이르는 음악회 출연과 방송 그리고 TV 출연
 - 2003 김종진 한국가곡 앨범 발간



■ **윤경호 교수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학력**

- 1969~1973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농학사
- 1973~1977 고려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농학석사
- 1983~1990 고려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주요 경력**

- 1980.4 ~ 2014.8 강릉원주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 1987.2 ~ 1988.7 강릉대학 교무과장
- 1989.10 ~ 1991.2 강릉대학 기획실장
- 1993.2 ~ 1994.2 미국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객원교수
- 1997.4 ~ 1999.4 강릉대학교 교수회 회장
- 1998.4 ~ 1999.12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 1998.1 ~ 2000.1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1999.3 ~ 2006.4 강원도 21세기 도정기획단 도정혁신연구단장
- 1998.3 ~ 2002.2 한국산악회(사) 강원지부 지부장
- 2000.2 ~ 2002.2 강원도농어촌연구소(사) 소장
- 2001.3 ~ 2005.3 강릉경실련(사) 공동대표
- 2001.2 ~ 2005.2 강원도 재정심의위원회 위원
- 2002.5 ~ 2004.4 강릉시 지방의제21 실천위원회 평가위원장
- 2004.3 ~ 2005.2 강원예술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2006.7 ~ 2007.7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 객원교수
- 2009.4 ~ 2010.7 함께 사는 세상(사) 이사장
- 2010.9 ~ 2012.1 강릉원주대학교 교무처장
- 2011.7 ~ 2012.1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 2012.5 ~ 2014. 현재 강릉시 분양가 심의위원회 위원장
- 2013.1 ~ 2014. 현재 강원지역사업평가원(재) 이사

■ **주요 활동**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역개발학회 : 이사, 상임이사, 부회장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상임이사, 강원지회 지회장 · 한국지역발전학회 : 부회장 - 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12.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강원지역농업 사례/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12. 비무장지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발에 관한 소고 · 2004. 6. 강릉시 지식기반제조업의 실태와 진흥 방안 · 2008.8. 미국 에너지정책의 변천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관한 연구 · 2012. 8. 강원 양양지역 연어의 산업화를 위한 제문제와 발전전략 · 2013. 12. 강원도 무역의 특징과 과제에 관한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연구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 8. 아름답고 살기좋은 강릉만들기(공동) · 2001. 11. 강릉농협 유통활성화사업 컨설팅 최종보고서(공동) · 2001. 12. 고성군 연안관리 및 수산정책 평가연구(공동) · 2002. 10. 강릉 연곡지역 경제활성화 기본계획(공동) · 2003. 12. 변화의 시대, 강원도 산업화 전략(공동) · 2004. 9. 3000만 관광객 수용을 위한 강릉시 관광거점 지역개발전략(공동) · 2005. 4. 강릉교동II지구 택지개발사업 백서작성 및 효과분석(공동) · 2006. 12. 고원눈마을 조성계획(공동) · 2008. 10. 고성군 에코시티 시범사업 기본계획-화진포 녹색기술공원 및 가진 생태주거단지를 중심으로(공동) · 2008. 12. 금강-설악권 통합특별행정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연구-관광산업을 중심으로(공동) -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1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제12384호) |
|--|---|



■ 최 효 교수 (대기환경과학과)

■ 학력

- 1968.3 ~ 1976.2 서울대학교 기상학과 이학사
- 1976.3 ~ 1978.2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상학과 이학석사
- 1979.6 ~ 1980.5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일리노이대학교), 대기연구소 박사과정
- 1980.8 ~ 1984. 5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텍사스대학교-오스틴), 토목공학과 공학박사
- 1999.9 ~ 2004. 6 중국, 북경대학 (Peking University), 환경과학대학 이학박사

■ 주요 경력

- 1984 ~ 1988 한국과학기술원 해양연구소(KAIST), 선임연구원 (한국정부 해외유치과학자)
- 1985 ~ 1985 1차 남극탐사대(남극, 킹조지섬-한국기지 설치 전), 현지탐사/통역/기지조사관
- 1986 ~ 1986 SCAR committee (남극연구과학위원회회의(미국 샌디에고), 한국정부대표
- 1986 ~ 1986 남극과학정책 정부간회의 (미국, 레이신), 한국정부대표
- 1987 ~ 1987 남극기지조사대 (남극, 킹조지섬), 현지조사/한국과학기지 설치 계획 입안자
- 1988 ~ 2014.8 강릉원주대학교 정교수 (부교수: 1988 ~ 1992)
- 1989 ~ 1991 강릉대학교 동해안지역연구소 소장
- 1994 ~ 1994 중국, “대도시개발-환경 국제심포지움”, 국제위원
- 1995 ~ 1996 중국,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 1등급초빙연구원
- 1997 ~ 1999 해양수산부,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겸임연구원 (대통령발령)
- 1999 ~ 1999 중국, 북경대학 환경과학센터, 1등급초빙교수
- 2002 ~ 2002 “2002년 한민족과학기술자총회-환경, 에너지, 생태심포지움”, 의장 및 국내환경학회 대표회장
- 2002 ~ 2002 “2002년 중고등학생과학엑스포”, 국내환경학회 대표회장
- 2002 ~ 2003 한국환경과학회 회장(1992 ~ 2002: 부회장)
- 2003 ~ 2003 “대한민국과학축전-2003년 청소년이공계진로엑스포”, 국내환경학회 대표회장
- 2003 ~ 2005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수산연구원 (대통령발령)
- 2004 ~ 2006 화천군 화천포럼21, 생태문화-관광분과위원장
- 2005 ~ 2005 터키, “3차 지구/지역/대도시규모대기질관리 국제심포지움”, 공동개최 회장
- 2005 ~ 현재 영국,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IBC)”, 부소장
- 2005 ~ 2006 싱가포르, “Advances in Geosciences, v5”, 편집위원장
- 2006 ~ 2008 싱가포르, “Asia-Oceania Geosciences Society(53개국)” 대기분야 회장 (부회장: 2005~2006, 2008~2009)
- 2009 ~ 2011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장 (13대)
- 2010 ~ 현재 인도, “Current Development in Oceanography”, 편집위원장
- 2011 ~ 2012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장 (14대)
- 2012 ~ 현재 미국, “International J. of Environment & Resources”, 부편집위원장



- 2013 ~ 현재 중국, 쑤저우해양대학 (Zhejiang Ocean University), 겸직교수
- 2014 ~ 현재 미국, "Current Advances in Environmental Science", 부편집위원장
- 2014 ~ 현재 미국, "Trends J. of Science Research", 편집위원장
- 2014 ~ 현재 미국, "American J. of Environmental Protection", 편집위원장
- 2014 ~ 현재 미국, "American J. of Food Sciences & Technology", 편집위원장
- 2014 ~ 현재 인도, "International J. of Oceans & Oceanography", 편집위원장
- 2014 ~ 2014 중국, "CCIT 2014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기술 국제회의", 기술위원
- 2013 ~ 2014 독일, "9차 대기질과학 및 응용 국제회의"(ICASA), 국제과학자문위원
- 2014 ~ 2014 미국, "3차 지구과학 및 기후변화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위원
- 2014 ~ 2014 한국, "2014 국제환경재해관리 및 예측 국제회의", 회장
- 2014 ~ 현재 한국, (사단법인) 대기.해양재해연구소, 이사장

■ 주요 활동

- 연구 활동

- 1985 ~ 1986 파랑도(Scotra Rock; 이어도)와 그 주변해역의 다목적 이용개발을 위한 연구 (과학기술처)
- 1985 ~ 1986 고흥-제주/홍콩-일본-한국/해저케이블 해양연구 (한국전기통신공사)
- 1986 ~ 1987 연안풍의 산업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처)
- 1989 ~ 1990 해상풍과 유류의 이동. 확산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 1990 ~ 1991 동해연안에서 풍성해류유형과 오염물질확산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1992 ~ 1993 산맥과 해륙풍의 영향에 의한 SO₂농도변화 (한국학술진흥재단)
- 1998 ~ 2000 양식장 적지 선정을 위한 해양물리환경/해수순환예측기술개발 (한국과학재단)
- 1999 ~ 2000 장마기간중의 산악연안에서 강수와 대기경계층 발달 관계 (과학기술부)
- 2002 ~ 2006 강원지방 폭설예측기술개발 (기상청, 기상연구소)
- 2006 ~ 2007 황사 전후 산과 연안에서 PM₁, PM_{2.5}, PM₁₀의 농도와 대기경계층과의 관계(한국학술진흥재단)
- 2009 ~ 2010 연안안개 형성에 표층해수온도와 지역대기순환 및 해양순환의 영향 (한국과학재단)
- 2006 ~ 2011 산악연안에서 바람폭풍의 생성역학과 예측 (기상청)
- 2014 ~ 현재 동해 연안해역에서 장기 및 단기수온변화와 연안기후(기온, 해상안개, 연안풍)와의 관계 예측 및 안전관리 (강원시그랜드)

- 포상

- 공로장(충무금장)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제86-58호, 남극탐사/연맹발전 공로(1986.01.31.)
- 국민훈장 목련장 한국정부, (남극탐사-조약), 제2878호(1986.12.24.)
- 기상청장표창 한국정부, 기상청, 제 797호(1999.03.20.)
- 한국환경과학회 공로상 한국환경과학회, 제04-01호(2004.05.21.)
- 21세기 2000탁월한 지식인 영국, 국제인명센터(IBC)(2005.06.)



■ **손진기 교수 (해양생물공학과)**

■ **학력**

- 1976. 02 건국대학교 낙농학과 학사
- 1981. 02 독일 기센대학교 대학원 석사
- 1985. 02 독일 기센대학교 세포공학연구소 박사

■ **주요 경력**

- 1985.12 ~ 1989.1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
- 1990.01 ~ 1995.03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 1995.03 ~ 2014.08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교수
- 2003.12 ~ 2005.01 강릉원주대학교 농어민 최고경영자과정교육원 원장
- 2006.02 ~ 2008.01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2006.03 ~ 2007.02 강릉원주대학교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소장
- 2009.01 ~ 2012.01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소장
- 2010.09 ~ 현재 한국기초기술과학지원연구원 이사

■ **주요 활동**

- 1984.01 ~ 현재 독일 세포유전학회 해외전문위원
- 1984.01 ~ 현재 유럽 유전공학학회 해외전문위원
- 2001.08 ~ 현재 한국발생생물학회 이사
- 2006.05 ~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운영위원
- 2008.01 ~ 현재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2012.03 ~ 현재 새시대 정책개발연구원 농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 2012.11 ~ 현재 새누리당 중앙선거 대책위 직능총괄본부 새시대 정책개발 특별 대책 위원회 중앙대책특보
- 2014.01 ~ 현재 송도생명공학원 대표이사



교수동정



2013. 11. ~ 현재

- ◎ 산업정보경영공학과 김성준 교수, 한국원자력학회에서 학회지 우수논문상 수상
- ◎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 2013년도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논문상 수상/ 2013년도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상 수상/ 2014년도 대한전기학회 전력계통보호 및 자동화연구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상 수상/ 2014년도 대한전기학회 제45회 하계학술대회 산업전기위원회 논문상 수상/ 2014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에서 논문상 수상/ 2014년도 대한전기학회 논문지 P권 논문상 수상/ 2014년도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논문상과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 국어국문학과 장정룡 교수, (사)국제아시아민속학회 이사장에 선임
- ◎ 식품영양학과 김은경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 ◎ 간호학과 이은희 교수, 여성건강간호학회 제11대 회장 취임
- ◎ 세라믹신소재공학과 박상엽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 ◎ 치의학과 박덕영 교수, 대한민국 대표로 태국 치아우식학회 국제회의에서 발표/ 세계치과연맹(FDI) 공중보건위원 당선
- ◎ 대기환경과학과 최효 교수, 미국 국제저널의 부편집장에 임명/ 2개의 미국 국제저널의 편집장 (Editor-in-Chief)에 임명
- ◎ 일본학과 김태영 교수, 한국일본문화학회 회장 취임 (임기 2014.3.1~ 2016.2.28)

- ◎ 해양자원육성학과 김정호 교수, 외 13인이 공저자로 참여한 ‘재난 미생물학’ 출간
- ◎ 국어국문학과 김무림 교수, 『한국어 어원 사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 선정
- ◎ 음악과 김숙희 교수, 장 프랑세 (Jean Francaix) 국제 피아노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초빙
- ◎ 패션디자인학과 엄소희 교수, 2014년도 복식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논문 발표상
- ◎ 해양생물공학과 변희국 교수, 2014년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에서 우수 논문 발표상
- ◎ 치의학과 차봉근 교수, 세계 100대 의학자에 선정되어 세계인명 사전 등재
- ◎ 국어국문학과 최병우 교수, 저서 <이산과 이주 그리고 한국현대소설> 201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
- ◎ 국어국문학과 장정룡 교수, 설악산·의상대 등장 민요집 첫 발굴
- ◎ 중어중문학과 홍영희 교수, 전국교수테니스 대회 여자부 복식 우승
- ◎ 해양분자생명공학과 진덕희 교수,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 ◎ 대기환경과학과 정명재 교수,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수상
- ◎ 국어국문학과 최병우 교수, 한국현대소설학회 회장 선출
- ◎ 화학신소재학과 정진승 교수, Journal of Biomedical Nanotechnology에 논문 게재
- ◎ 산업정보경영공학과 임영문 교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4대 원장으로 선임
- ◎ 산업정보경영공학과 박준철 교수, 엄완섭 교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우형 박사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 2014년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한국정보전략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수상
- ◎ 치의학과 이시영 교수, 정다슬, 이학균 지도로 제16회 치의학과 전국 학생학술경연 대상



2013. 11. ~ 현재

1. 평의원회 개최

1) 제18-1차 평의원회 (2013.11.21)

- 안건 1. 신임회장단 인사 및 감사 선임
 2. 지역대학 교수회 연합회(지교련) 회의 결과 설명 및 토의
 3. 평의원회 소집 건 개선 방식 토론
 4. 기타 : 교수회 사무실 이전 건

2) 제18-2차 평의원회 (2013.11.26)

- 안건 1. 김근중 교수 직위해제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취소결정에 따른 교수회의 대처 방안

3) 제18-3차 평의원회 (2013.12.27)

- 안건 1. 기성회계 예산 중 총장공관구입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대응 방안
 2. 기타 : 김근중 교수 관련 징계위원회 소집 및 결정 경과 보고

4) 제18-4차 평의원회 (2014.1.16)

- 안건 1. 단과대학장 선출과 관련한 제반 문제 논의

- 2. 퇴직 교원에 대한 교수회의 예우 관련 건
 - 3. 기타
- 보고 1. 김근중 전 사무처장의 징계위원회 소집 건
- 2. 학과장 총장 고발 건 진행상황
 - 3. 총장 면담 요청 건
- 5) 제18-5차 평의회 (2014.1.28)
- 안건 1. 교무위원 임명 동의안 처리
 - 2. 기타 보고 사항: 교무처장 면담 결과 설명(학장 선출 건 등)
- 6) 제18-6차 평의회 (2014.2.25)
- 안건 1.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2. 기타
- 7) 제18-7차 평의회 (2013.3.12)
- 안건 1. 교수회 학칙화 서면 투표 건
 - 2.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한 전방욱 총장 고소/고발 건
 - 3. 패션디자인학과에서 제시한 학내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건
 - 4. 기타 안건
- 보고 1. 기성회 회계 공문 내용 및 반영사항
- 8) 제18-8차 평의회 (2013.5.1)
- 안건 1. 성과급연봉제 폐지를 위한 자료제출거부 건
 - 2. 총장 고발 찬반투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건
- 보고 1. 성과급연봉제 관련 자료제출거부 운동에 대한 교무처장과의 면담결과
- 2. 총장선출규정(안)
 - 3. 교수회 법정화건
- 9) 제18-9차 평의회 (2013.6.11)
- 안건 1. 총장선출규정 개정(안) 설문조사 결과 및 논의
 - 2. 총장 고발 건



3. 패션디자인 학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건
4. 중장기 발전계획 위원회 구성 건
5.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한 설명자료 건

10) 제18-10차 평의원회 (2013.7.17)

- 안건
1. 총장선출규정 개정안 건
 2. 총장 고발 건
 3. 교수회 학칙화 건
 4. 통합타당성조사위원회 관련 건
 5. 기성회 임원 명단 정보공개요청 건

11) 제18-11차 평의원회 (2013.8.27)

- 안건
1. 총장 중간평가 건
 2. 총장선출규정 개정 건
 3. 교수회 학칙화 건
- 보고
1. 지교련 및 국교련 회의내용
 2. 성과급연봉제 및 성과급 지급 건
 3. 총장선출규정 개정안에 대한 총장의 입장
 4. 교수회 학칙화에 대한 총장의 입장
 5. 도내통합대학 실태조사위원회 활동
 6. 패션디자인학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7. 교원임용규정에 대한 교수회 입장
- 기타
1. 임세복 교수 공판 건
 2. 패션디자인학과 공판 건 등

12) 제18-12차 평의원회 (2013.9.18)

- 안건
1. 총장 중간평가 건
 2. 총장선출규정 개정 건
 3. 교수회 학칙화 건
- 보고
1. 지교련 및 국교련 회의내용
 2. 성과급연봉제 및 성과급 지급 건

- 3. 총장선출규정 개정안에 대한 총장의 입장
 - 4. 교수회 학칙화에 대한 총장의 입장
 - 5. 도내통합대학 실태조사위원회 활동
 - 6. 패션디자인학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 7. 교원임용규정에 대한 교수회 입장
- 기타 1. 임세복 교수 공판 건
- 2. 패션디자인학과 공판 건 등
 - 3. 지교련 회의 개최 건

13) 제18-13차 평의원회 (2013.10.8)

- 안건 1. 총장선출규정 개정(안) 찬반투표 건
- 2. 본부에 대한 교수회 학칙화 대응 건
 - 3. 총장 행정행위 및 공약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건
- 보고 1. 지교련 회의 개최 일정
- 기타 1. 학내사안

14) 제18-14차 평의원회 (2013.11.4)

- 안건 1. 총장선출규정 개정위원회 구성
- 2. 총장 고발 건의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 건
- 기타 1. 교수회 학칙화 대응 건

2. 국교련, 지교련 출장

1) 2013년도 제33차 지교련 회의 (11.14~11.15 안동대학교)

- 안건 1. 강릉원주대학교 문제 논의
- 2. 성과급적 누적 연봉제 논의
 - 3. 기성회 수당 지급 금지에 따른 대책 논의
 - 4. 기타



2) 2014년도 국교련 총회 및 동계워크숍 (2.6~2.7 부산과라다이스호텔)

- 일정
1. 국립대학법(안) 정책토론회
 2. 상호약탈식 연봉제 정책토론회
 3. 총회
 4. 기타

3) 2014년도 제34차 지교련 회의 (2.13~2.14 금오공과대학교)

- 안건
1. 각 대학 학장임명사례 발표 및 대응 방안
 2. 성과급연봉제 실시
 3. 총장선출 사례 발표 : 이미 총장 선출한 대학들

4) 2014년도 제35차 지교련 회의 (4.17~4.18 군산대학교)

- 안건
1. 교수노조합법화 추진과 지방대특성화 사업 대책 마련
 2. 성과급연봉제 자료 제출 거부 운동
 3. 회칙 개정(제3조 회원, 제12조 제정)

5) 2014년도 제1차 국교련 임시총회 (4.2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안건
1. 국교련 사업계획 및 회비분담
 2. 성과연봉제 대응방안
 3. 총장선출제 대응방안
 4. 대학구조개혁 특성화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
 5. 사무총장 임명승인
 6. 국교련 조직형태 변화 모색 건
 7. 기타

6) 2014년도 제36차 지교련 회의 (8.13~8.14 한밭대학교)

- 안건
1. 상호약탈식 연봉제 폐지운동
 2. 국교련의 교섭 단체화
 3. 대학구조개혁 및 지방대 특성화 사업
 4. 기타

7) 2014년도 국교련 하계워크숍 및 제3차 임시총회 (8.18~8.19 제주그랜드호텔)

- 일정 1. 정책토론회
- 2. 총회

8) 2014년도 제4차 국교련 임시총회 (10.24 한밭대학교)

- 안건 1. 현안과제 대응방안(성과연봉제, 총장선출제, 대학구조개혁, 기성회비문제)
- 2. 국교련 추천사업 점검(조직변경, 공교육회복운동)
- 3. 기타

3. 주요 활동

1) 제18대 교수회 출범 (2013.11.1 ~ 2015.10.31)

- 회장 : 정강연, 부회장 : 박철원

2) 총장선출규정개정위원회 활동 (2014.5 ~ 2014.8)

- 위원장 : 박홍식
- 위원 : 이영규, 이태연, 염승호, 이준동

3) 패션디자인학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2014.8.1 ~ 2014.9.30)

- 위원 : 김영식, 이영규, 하태권

4) 도내통합대학 실태 조사위원회 활동 (2014.7 ~ 2015.1)

- 강릉대와 원주대의 통합과 강원대와 삼척대의 통합을 분석하여 통합전후의 실태 비교를 분석하여 장단점을 제공함으로써 학과 또는 교수님 개인들이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학 개혁의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 위원장 : 이근택
- 위원 : 이현모, 유병진, 안택식, 최충현, 염승호, 이영훈, 이지영, 정기명, 이준동, 서길희



5) 서면투표

- 교수회 학칙화(법정화) 찬·반 투표

일정 : 2014.3.31(월) 오전 10시 - 2014.4.9(수) 오후 4시

결과 : 투표율: 68.6% / 찬성률: 96.7%

- 전방욱 총장의 기성회 유용 건에 대한 고발 찬·반 투표

일정 : 2014.4.14(월) 오전 10시 - 2014.4.23(수) 오후 4시

결과 : 투표율: 63.6% / 찬성률: 52.1%

6) 총장의 기성회 예산 유용 관련 고발(2014.5.30) :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

7) 입법예고 중인 학칙 제101조 제5항 제1호에 대한 개정(안) 부당성 알림(2014.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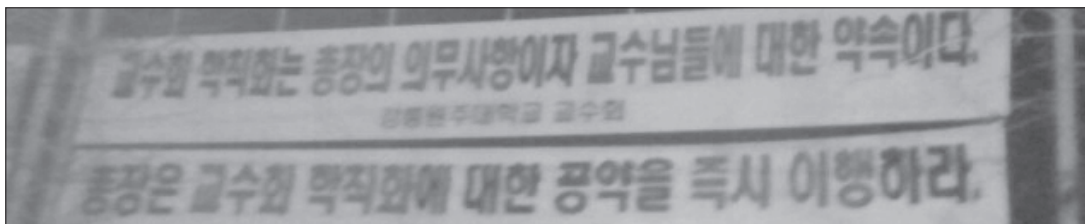
- 전체교수회에서 통과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교무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입법 예고를 본부에서 철회함.

8) 총장중간평가 설문조사 추진위원회 (2014.10 ~ 2014.12)

- 위원장 : 김순귀, 위원 : 박준철
- 설문조사 실시(2014.11.10 ~ 11.20)
- 설문조사지 회수율 : 54.4%

9) 교수회 학칙화 추진

- 총장에게 학칙화 시행일정요청 공문시행, 현수막설치, 성명서발표 등



총장은 교수회 학칙화에 대한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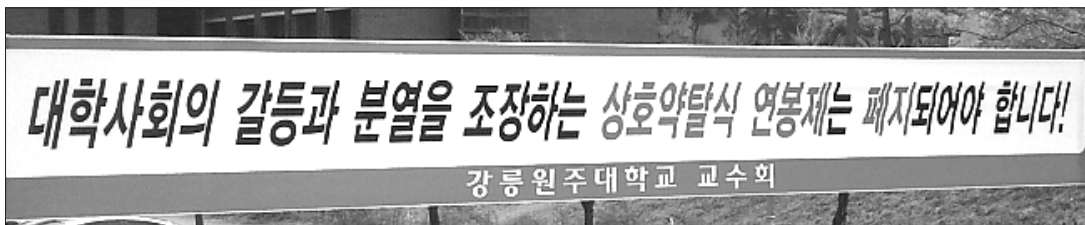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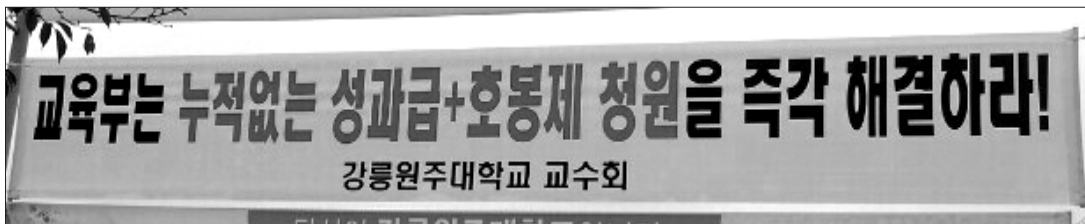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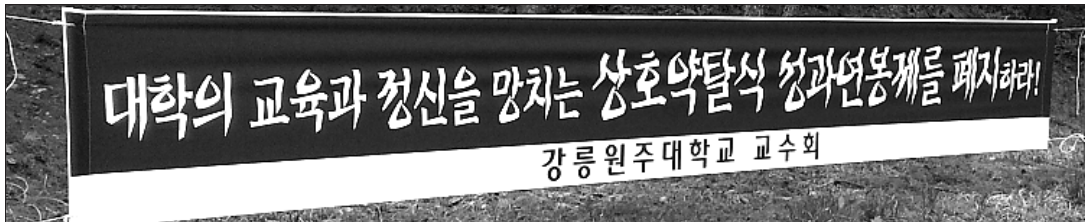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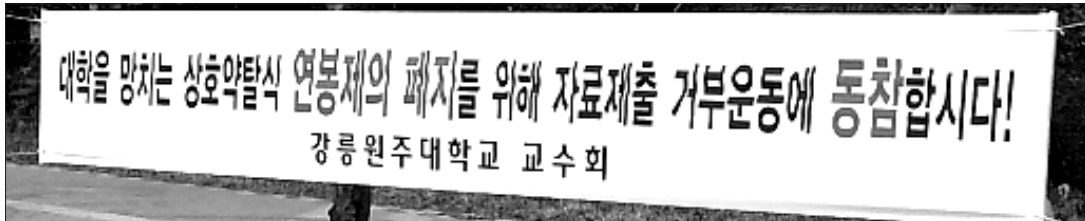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교수회 학칙화는 총장의 의무사항이자 교수님들에 대한 약속이다.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10)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운동

- 누적있는 성과급연봉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호봉제가 아닌 기본급(경력가
급 포함) + 누적없는 성과급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임.



11) 기성회회계 폐지 건과 관련된 복지예산 건

- 2015년도 예산편성 중 기성회계에서 지급되던 월급성 인건비와 향 후 각종 보조금예산
시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전체교수님에게 알려줄 것을 본부에 요구(공문시행)함.



강릉원주대 학교 교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2011. 11. 01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101조에 의거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①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집행부와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출 및 총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회장, 단과대학교수회 또는 전임교원 1/3 이상이 제출한 안건
4. 교수회 및 평의원회 조직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선출직 단과대학장을 제외한 교무위원의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
6. 대학 예산안의 동의 및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7. 학장후보자의 선출과 학장 불신임
8. 평의원 선출과 불신임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총장은 반영여부를 교수회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3. 대학시설과 교육 및 행정조직의 설치와 폐지

- ③ ①항 5, 6은 평의원회에, ①항 7, 8은 단과대학교수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대의기구) 본회의 대의기구로서 평의원회를 둔다.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4조(단과대학교수회) 본회의 권한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단과대학교수회를 따로 둔다.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5조(집행부의 구성) 본회의 집행부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강릉캠퍼스 1인, 원주캠퍼스 1인), 사무처장 2인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집행부의 선출)

- ① 회장은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 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부회장은 캠퍼스 별로 재적인원 과반수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교무위원을 제외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④ 사무처장은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 ⑤ 집행부는 임기만료 30일전 차기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선거관리를 위한 집행부선출위원회가 선거업무를 담당하며 이 위원회는 각 단과 대학 수석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제7조(감사) 본회의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감사 1인을 둔다.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임기)

-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대하여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집행부와 감사는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퇴할 수 있다.



제9조(회장) 회장은 교수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그 결의에 따라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제10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제11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사무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12조(회의)

- ①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본회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총회는 회의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의결안건은 회의소집 시 공고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한다.

제13조(의사 및 의결)

- ① 본회는 전체교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안건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장과 부회장 및 총장 불신임안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휴직자 및 1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자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된다.
- ④ 사전에 위임장(별표1)을 제출한 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 회의 성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공지후 소정의 표결기간을 두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공개)

- ① 회장은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 학생 및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 할 수 있다.
- ② 방청인은 회의질서 유지를 위한 회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5조(사무직원) 본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재정)

- ① 본회의 재정은 본교예산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③ 본회 집행부 및 감사와 사무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평의원들의 평의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개정) 본 규정의 제·개정은 본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현 집행부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18대 교수회 평의원 명단

2014.11.19 현재

구 분	성 명	소속학과	연락처	입 기
회 장	정강연	생명화학공학과	kyjung@gwnu.ac.kr	2015.10.31
부회장	박철원	전기공학과	cwpark1@gwnu.ac.kr	2015.10.31
인문대학 평의원 (4)	이상훈(수석)	독어독문학과	lsh@gwnu.ac.kr	2016.02.29
	장정룡	국어국문학과	jy1@gwnu.ac.kr	2016.02.29
	최일의	중어중문학과	cie@gwnu.ac.kr	2016.02.29
	이호근	철학과	phlee@gwnu.ac.kr	2016.02.29
사회과학대학 평의원 (5)	김근중(수석)	경제학과	kgj2171@gwnu.ac.kr	2015.12.31
	박창래	회계학과	pcr@gwnu.ac.kr	2015.12.31
	김건석	도시계획부동산학과	kskim@gwnu.ac.kr	2015.12.31
	이영규(사무처장)	법학과	jieahn@gwnu.ac.kr	2015.12.31
	김영식	국제통상학과	yskim@gwnu.ac.kr	2015.12.31
자연과학대학 평의원 (4)	정명재(수석)	대기환경과학과	mjeong@gwnu.ac.kr	2015.12.04
	정은희	화학신소재학과	eunheej@gwnu.ac.kr	2015.12.04
	이규송	생물학과	leeks84@gwnu.ac.kr	2015.12.04
	김용찬	수학과	yck@gwnu.ac.kr	2015.12.04
생명과학대학 평의원 (4)	용영록(수석)	식물생명과학과	yryeoung@gwnu.ac.kr	2015.03.01
	유상권	해양식품공학	umyousg@gwnu.ac.kr	2015.03.01
	권동진	식품가공유통학과	kdj6001@gwnu.ac.kr	2015.03.01
	홍수희	해양생물공학	s.hong@gwnu.ac.kr	2015.03.01
공과대학 평의원 (4)	하태권	신소재금속공학과	tkha@gwnu.ac.kr	2016.06.22
	김세훈	세라믹신소재공학과	vitamineshkim@gmail.com	2016.06.22
	정우영	도목공학과	woojung@gwnu.ac.kr	2015.06.22
	박래정(수석)	전자공학과	ljpark@gwnu.ac.kr	2016.06.22
예술체육대학 평의원 (2)	김용근(수석)	체육학과	bskyk@gwnu.ac.kr	2015.05.31
	우현리	패션디자인학과	woo405@gwnu.ac.kr	2016.02.29
치과대학 평의원 (5)	김영준(수석)	치의학과	alcor3@gwnu.ac.kr	2015.11.27
	김진우	치의학과	mendo7@gwnu.ac.kr	2015.11.27
	박세희	치의학과	drendo@gwnu.ac.kr	2015.11.27
	최동순	치의학과	dschoi@gwnu.ac.kr	2015.11.27
	장인산	치의학과	insan@gwnu.ac.kr	2015.11.27
보건복지대학 평의원 (3)	서길희(수석)	간호학과	ghsuh@gwnu.ac.kr	2016.02.29
	이행옥	여성인력개발학과	holee1@gwnu.ac.kr	2016.02.29
	김현정	유아교육과	kimhj@gwnu.ac.kr	2016.02.29
과학기술대학 평의원 (3)	이대연 (수석, 감사)	기계의용공학	tynlee@gwnu.ac.kr	2015.02.28
	이준동 (사무처장)	멀티미디어공학	jlee@gwnu.ac.kr	2015.02.28
	김사량	정밀기계공학	dearksr@gwnu.ac.kr	2015.02.28
	김영태	컴퓨터공학	ykim@gwnu.ac.kr	2015.02.28
	김영태	전기공학	ytkim@gwnu.ac.kr	2015.02.28